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 아마존 입점으로 뚫는다

광주시, 올해 20개사 입점 지원... 온라인 유통망 통한 수출판로 다변화

광주광역시시는 광주전남KOTRA지원단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유통망 '아마존 US (Amazon US)' 입점을 지원한다.

아마존 US는 월 방문객 1억5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다.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라인 유통망 입점 사업을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 US 입점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개사에서 올해 20여 개사로 확대할 계획이

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1 밀착 입점 컨설팅' 등 입점 코칭부터 후속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홍보비와 물류비를 살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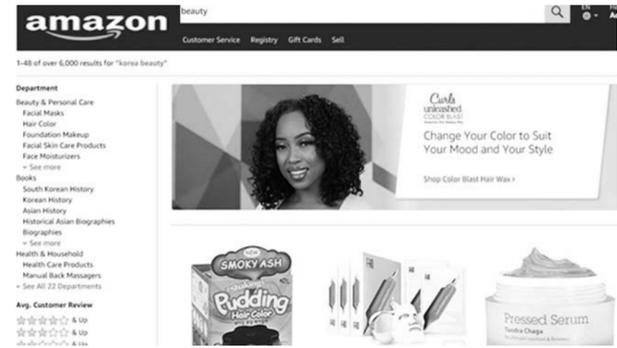
'2020 중소기업 아마존US 입점 지원사업' 참가 기업은 30일부터 4월17일까지 광주전남KOTRA지원단 홈페이지의 지원단소식에서 모집한다.

한편, 지난 2018년 설립된 A사는 지난해 사업에 참가해 준비 4개월 만에 입점 절차를 마치고 6개월간 2만달러 가량의

매출을 올려, 신생 기업으로서 초기 매출 창출에 성공했다.

A사는 "입점 절차가 까다로웠지만 담당 매니저의 컨설팅으로 쉽게 프로페셔널 셀러로 등록하고, 지원금으로 아마존 홍보료를 이용해 매출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아마존 US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글로벌 유통망에 선보이고, 중소기업의 수익 창출 창구가 다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는 광주전남KOTRA지원단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유통망 '아마존 US(Amazon US)' 입점을 지원한다. 사진은 아마존닷컴 페이지. /광주시 제공

홀리데이인광주호텔, 코로나19 극복 빵 2천개 전달

김종효 행정부시장 "끝없는 온정의 손길 코로나19 극복 큰 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잠시멈춤' 캠페인이 펼쳐지는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각계각층의 기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30일 오후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김종효 행정부시장, 박병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홀리데이인광주호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애쓰는 보건소·선별진료소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호텔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 2000개를 전달했다.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피로 회복과 다리 부종에 효과가 있는 팔이 들어간 단팻빵과 누구나 좋아하는 소보로빵을 각 1000개씩 준비했다.

빵은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선별진료소와 시·구 자원봉사센터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병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대표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을 지키는 효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팥을 듬뿍 넣은 단팻빵을 준비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헌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드리고자 호텔 직원들이 힘을 모아 평소 생산량의 50배 이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잠시멈춤' 캠페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광주 시민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 봄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김종효 행정부시장, 박병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대표이사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물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홀리데이인광주호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애쓰는 보건소·선별진료소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호텔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 2000개를 전달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문체부 '관광두레 사업' 2개 시군 선정

순천 정희주·고흥 정지영 PD 지정해 주민 중심 관광사업체 육성

전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공모에 순천시와 고흥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순천 정희주 청춘붓 투어 대표와 고흥 귀농인 정지영 (느타리버섯 재배) 씨 등 14명이 각각 해당지역 관광두레 프로듀서(PD)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관광두레 PD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활동할 시군은 순천, 광양, 나주, 고흥, 보성, 강진이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지역 고

을 수상한 바 있다.

귀농 6년째를 맞은 정지영 씨는 한류상품 개발과 유통을 취급한 일반 회사에서 11년간 종사하다 지난 2015년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후 고흥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정원센터 조성사업에 뛰어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했으며, 농협중앙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간 전액 국비로 활동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에서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한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를 수상한 바 있다.

귀농 6년째를 맞은 정지영 씨는 한류상품 개발과 유통을 취급한 일반 회사에서 11년간 종사하다 지난 2015년 고향으로 내려왔다. 이후 고흥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정원센터 조성사업에 뛰어들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도했으며, 농협중앙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앞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간 전액 국비로 활동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에서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한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시립무등도서관, 내일 '진화하는 미국의 직장문화' 화상강연 운영

광주광역시시립무등도서관 아메리칸 코너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온라인 화상강연 '진화하는 미국의 직장 문화'를 선보인다.

이번 화상 강연에서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TESOL 석사 조세핀 위(Josephine Wie) 씨가 미국 직업 윤리의 역사, 미국 노동 인구 및 산업의 변화 추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재택근무 등 최근의 직장 문화의 변화에 대해 영어로 소개한다.

아메리칸 코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강연을 기획했다.(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활용) 참여 대상은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으로, 세부 내용 확인 및 참가 신청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아메리칸 코너 페이스북에서 하면 된다. 아메리칸 코너는 신청자에 한해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설치 및 접속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시민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아동수당 대상자에 '돌봄쿠폰' 지급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총 40만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추경(3.27.) 예산에 317억원을 기 반영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오는 4월 아동 1인당 총 40만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7만9000여 명이며,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급 방식은 수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돌봄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4월6일부터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검도회, 운영 지원금 전달 각 도장에 총 1,900만원 지원금

광주시검도회(회장 최용훈)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검도장에 지원의 손길을 뻗었다.

검도회는 30일 오전 10시 광주시검도회관에서 최용훈 검도회장을 비롯해 검도장 관장, 임원 등 협회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인 도장에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금은 총 1,900만원으로 관내 19개 공인도장에 각 100만 원씩 지원된다. 재원은 각종 대회 격려금, 행사 축소, 임원 출연금 등 협회 사업비를 조금씩 줄여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운영을 중단하는 도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검도회는 이번 지원금으로 인해 일선 도장들이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도장 관계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용훈 광주시검도회장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데 다른 종목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오늘의 위험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일, 활력, 동력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발령 일자 감시 시스템